

# 정책분석과 동향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김세진·김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sup>1)</sup>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of One-Person Household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원

이 글은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 변화와 1인가구 집단 내 특성 변화를 연령군별로 살펴봄으로써 중고령 1인가구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을 그려 보며 이들의 삶의 모습을 기반으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시계열 분석과 연령군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어려움과 정책 욕구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의료 및 돌봄, 주거,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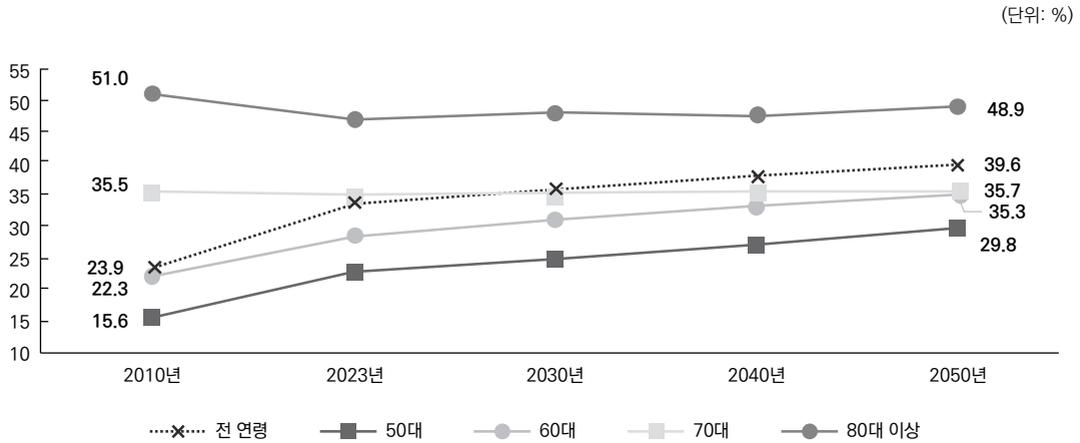
### 1 들어가며

한국의 1인가구는 2010년 417만 4000가구에 서 2023년 734만 1000가구로 1.7배가량 급증하였다. 연령군별로는 80대(20만 4000가구(2010) → 60만 7000가구(2023))가 2010년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50대와 60대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40년까지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2).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2023년 33.6%이다. 연령군별로 80대 이상은 전체 가구의 45% 이상이 1인가구로 이미 1인가구가 주도적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은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 연령군별로는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50~60대는 계속적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은 2023년 이후 큰 변화

1) 이 글은 김세진, 김혜수, 이선희, 채주석, 강은나. (20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요약·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1]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 비율



출처: “장래가구추계: 가구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_시도”, 통계청, 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

를 보이지 않는다. 비혼·만혼·이혼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위의 통계치와 같이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중장년 이후 세대에서의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인가구의 보편화와 함께 새롭게 확대되는 중장년 1인가구를 고려한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인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비교를 통해 1인가구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였다(변미리, 2015; 이원진 외, 2021; 김석호, 2021). 1인가구를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나타나는데, 노인복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인 1인

가구에 관한 정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문요양과 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노인 1인가구(독거노인)는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노인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중장년 1인가구가 노인이 된 이후 이들이 갖는 현재 노인 1인가구와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향후 10년 뒤 한국의 노인상은 현재의 부양이 필요한 대상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인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윤경 외, 2021). 현재의 노인 1인가구와 미래 노인층인 중장년 1인가구는 1인가구라는 공통점 외의 영역에서는 이질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중장년 세대의 경우 1인가구가 하나의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노인 1인가구와 다른 측면의 욕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노년기 진입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원에서 기존 노인 1인가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1인가구에 대한 논의들은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외의 특성에 따른 욕구와 정책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주로 취약계층 중심의 1인가구에 대한 접근, 다인 가구와의 비교, 청년·중년·노년이라는 세대 구분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과거 대비 현재의 삶의 모습에 대한 비교, 중고령<sup>2)</sup> 집단 내 세부 특성 파악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의 조건에 ‘무배우’와 ‘1인가구의 지속 의향’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무배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40대 이하(1980년대 이후) 세대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세대(출산율 2.0 내외 시기 출생자)로 자녀가 없는 경우 향후 원가족이 부재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 글에서 광의의 1인가구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고, 협의의 1인가구는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개념

을 모두 적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과거 대비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 변화에 대한 비교와 이들이 갖고 있는 1인가구로서의 삶의 어려움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중고령 1인가구 집단 내에서도 집단을 세분화하여 연령군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1인가구 집단 내에서의 연령군별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현재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비교함과 동시에 현재의 50~60대 중장년 1인가구가 향후 70~80대 고령 1인가구가 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도 추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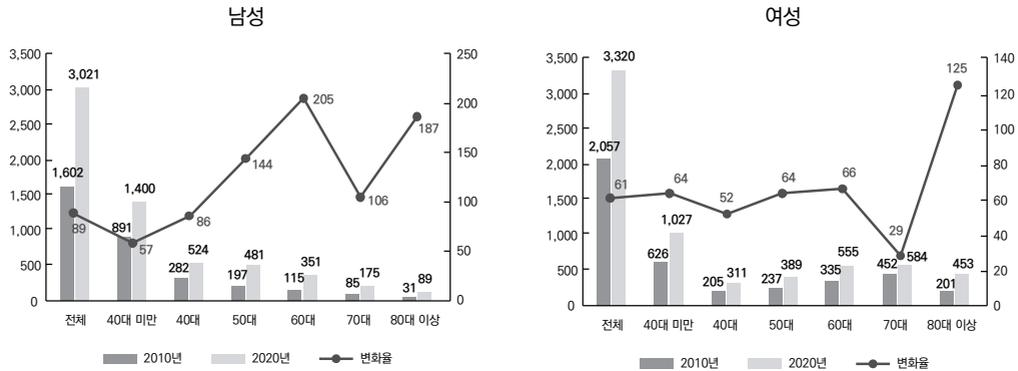
## 2 중고령 1인가구의 정의 및 특성

무배우 1인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전수 부문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본 부문은 20%에 해당하는 표본에 대한 조사로 진행된다(통계청, 2020b). 가장 최근에 실시된 표본 단위 조사는 2020년 인구총조사인데, 5년 단위로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2010년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마이크로데이터를 적용하여 2010년 무배우 1인가구와 2020년 무배우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

2) 이 글에서 중고령자는 50세 이상의 중년층~노년층을 포함한 연령군으로 정의한다.

[그림 2] 연령군별·성별 무배우 1인가구 변화

(단위: 천 명, %)



주: 변화율 = (2020년-2010년)/2010년\*100.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c,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교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중고령 1인가구의 타 세대와의 차이점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전 연령군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40세 미만의 청년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40대 이후 10세군별로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령군별, 성별 무배우 1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무배우 1인가구의 증가 폭이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 연령층의 무배우 1인가구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60대의 경우 변화율이 205%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80대 이상, 50대의 변화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군에서 60% 정도의 변화율을 보였는데, 70대는 29%로 타 연령군에 비해 낮았다. 반면 80대 이상은 125%로 높은 변화

율을 보였다. 즉 80대 이상의 초고령 노인 무배우 1인가구의 증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50~60대 중장년층의 무배우 1인가구 증가율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배우 1인가구는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별, 이혼 순이었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은 미혼과 이혼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사별은 감소하였다. 연령군별로 시계열 변화가 매우 뚜렷한데, 40대와 50대는 2010년 대비 이혼 비율은 유사하지만, 미혼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60대는 사별 비율은 감소하고, 이혼과 미혼 비율이 증가하였다. 2020년 60대 집단은 2010년 50대였던 집단으로 당시의 혼인 상태에서 일부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배우 1인가구 70대도 2010년에는 사별 비율이 93.7%였으나, 2020년에는 79.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1.3%포인트 증가하였다. 80대 이상은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2010년에 비해 2020년 무배우 1인가구의 혼인 상태는 변화하였으며, 연령

군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0대와 50대는 미혼 비율이 급증하고, 60대와 70대는 이혼 비율이 급증하였다. 무배우 1인가구의 교육 수준은 2010년 중학교

[표 1] 무배우 1인가구의 연령군별 혼인 상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미혼	사별	이혼	미혼	사별	이혼
전체	51.5	33.2	15.3	55.5	25.4	19.1
연령						
40대 미만	96.2	0.1	3.6	97.9	0.1	2.1
40대	58.3	4.6	37.1	76.1	1.1	22.9
50대	23.8	28.7	47.4	39.0	11.3	49.7
60대	6.0	74.3	19.7	14.3	41.7	44.1
70대	1.6	93.7	4.8	4.4	79.5	16.1
80대 이상	0.8	97.6	1.6	1.3	95.6	3.2

주: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c,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표 2] 무배우 1인가구의 연령군별 교육 수준

(단위: %)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38.3	24.9	36.8	25.8	29.5	44.8
연령						
40대 미만	2.1	26.2	71.7	0.7	18.7	80.6
40대	17.8	50.8	31.4	3.6	42.8	53.6
50대	52.7	33.7	13.6	15.8	55.8	28.4
60대	79.1	15.3	5.7	42.1	45.2	12.7
70대	89.5	7.2	3.3	77.5	15.8	6.8
80대 이상	93.7	4.4	1.9	88.0	8.0	4.0

주: 1)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2) 졸업, 재학, 중퇴 포함.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c,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대학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대학 이상의 비율이 22.2%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는 급감하여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50대는 2010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36.9%포인트 감소하였고, 대학 이상 비율이 14.8%포인트, 고등학교 비율이 22.1%포인트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60대는 50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고등학교 비율이 29.9%포인트 증가하였다. 대학 이상의 증가율은 50대보다 낮은 특성을 보인다. 70대와 80대 이상도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40~60대의 교육 수준 변화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무배우 1인가구는 5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았다. 2010년 대비 2020년 경제활동 상대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20년 57.9%로 2010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와 60대의 증가율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았다.

무배우 1인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 및 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가, 전세 순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자가 비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무배우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0.2%포인트 증가, 전세는 1.7%포인트 감소한 반면 월세 및 무상은 1.4%포인트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표 3] 무배우 1인가구의 연령군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일하고 있음	현재 휴직 중	일한 적 없음	일하고 있음	현재 휴직 중	일한 적 없음
전체	52.9	1.9	45.2	57.9	1.9	40.3
연령						
40대 미만	69.0	2.3	28.8	75.4	2.0	22.6
40대	71.9	3.3	24.8	78.4	3.3	18.4
50대	58.4	2.3	39.2	67.1	2.7	30.2
60대	35.1	1.4	63.5	43.6	1.4	54.9
70대	20.3	0.6	79.1	21.2	0.4	78.4
80대 이상	7.2	0.3	92.5	8.4	0.2	91.4

주: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c,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표 4] 무배우 1인가구의 연령군별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2010년			2020년		
	자가	전세	월세 및 무상	자가	전세	월세 및 무상
전체	32.8	19.9	47.3	33.0	18.2	48.7
연령						
40대 미만	10.6	25.4	64.1	12.8	26.1	61.1
40대	22.3	21.1	56.5	28.4	18.9	52.7
50대	35.2	17.5	47.4	34.0	14.0	52.0
60대	57.4	14.6	28.1	46.0	12.3	41.7
70대	67.5	12.9	19.6	61.9	10.5	27.5
80대 이상	67.8	13.0	19.3	67.1	9.2	23.8

주: 인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산출.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c, 2% 표본 원자료 재분석.

40대 미만(2.2%포인트)과 40대(6.1%포인트)는 자가 비율이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은 월세 및 무상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60대의 경우 자가 비율이 11.4%포인트 감소하여 타 연령군에 비해 60대 무배우 1인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가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중고령 1인가구의 형성 과정 및 정책 욕구<sup>3)</sup>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은 2020년 가족실태조사<sup>4)</sup> 원자료(여성가족부, 2020)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중고령 1인가구의 형성 과정 및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해 50세 이상 연령군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중고령 1인가구의 형성 이유를 살펴본 결과 17.7%는 자발적(혼자 살고 싶어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으로)으로, 77.4%는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하였다. 구체적 사유로는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특성상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1인가구 형성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다. 연령군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50대는 혼자 살고 싶어서 1인가구를 형성

3)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은 이 글에서 정의한 1인가구 정의 중 협의의 1인가구 개념인 ‘독립된 주거지에서 계속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배우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4) 가족실태조사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조사부터 1인가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1인가구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과의 비교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 비율(18.1%)이 높아 타 연령군과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비자발적 이유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 사망에 따른 1인가구 형성의 비율이 높았

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의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 형성 비율이 높았다.

중고령 1인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3.1년으로

**[표 5] 중고령 1인가구 형성 이유**

(단위: %)

구분	자발적 이유				비자발적 이유								기타	계
	혼자 살고 싶어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취업) 때문	소계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의 이혼으로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 (취업) 때문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취업) 때문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의 직장 (취업) 때문	소계		
전체	11.2	3.7	2.8	17.7	41.7	24.1	0.0	7.2	4.3	0.0	0.1	77.4	4.9	100.0
연령														
50대	18.1	4.4	7.2	29.7	8.3	40.8	0.1	6.4	7.1	0.0	0.3	63.0	7.3	100.0
60대	9.6	3.5	2.8	15.9	28.3	34.9	0.0	9.3	5.9	0.0	0.0	78.4	5.7	100.0
70대	11.1	3.1	0.8	15.0	62.6	10.6	0.0	6.1	2.5	0.1	0.0	81.9	3.1	100.0
80대 이상	5.1	3.9	0.0	9.0	75.5	5.0	0.0	6.4	1.1	0.0	0.0	88.0	3.0	100.0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원자료 재분석.

**[표 6] 중고령 1인가구 거주 기간**

(단위: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평균
전체	4.7	21.0	16.2	19.8	9.7	28.5	100.0	13.1
연령								
50대	6.3	21.4	17.2	20.0	9.7	25.4	100.0	11.9
60대	6.1	21.0	14.9	20.4	8.5	29.1	100.0	12.9
70대	3.3	21.0	17.9	21.0	10.7	26.1	100.0	13.3
80대 이상	2.2	20.5	14.8	16.7	10.5	35.3	100.0	14.9
혼인 상태								
미혼	3.3	9.7	8.7	15.3	7.4	55.6	100.0	20.8
별거·이혼	4.8	19.1	15.3	21.5	10.9	28.5	100.0	13.0
사별	4.9	24.6	18.5	19.7	9.5	22.8	100.0	11.6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원자료 재분석.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28.5%로 가장 많고, 1년 이상 5년 미만 2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9.8%, 5년 이상 10년 미만 16.2% 등이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 기간이 긴 특성이 있었다. 연령군별 차이보다 혼인 상태에 따른 거주 기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미혼 집단의 경우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55.6%로 별거·이혼(28.5%), 사별(22.8%) 집단에 비해 장기간 거주한 비율이 높았다. 사별 집단의 경우 전체 중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한 비율(24.6%)이 가장 높아 미혼, 별거·이혼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중고령 1인가구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는 아플 때 대처, 가사활동(식사 준비, 주거 관리, 장보기 등), 경제적 불안, 고립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느

끼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50, 60대가 70, 80대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점수가 높았다.

향후 1인가구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 중고령 1인가구는 87.6%였다. 이들이 앞으로의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으로 41.0%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35.8%, 심리적 외로움 8.4%,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5.0%의 순으로 대부분 돌봄과 경제적 측면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비율은 낮았다. 80대 이상은 타 집단에 비해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중고령 1인가구의 정책 욕구를 살펴본 결과 주택 안정 지원(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주택 자금 대출 등)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돌봄서

**[표 기] 중고령 1인가구가 현재 1인가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단위: 점)

구분	고립되어 외로움	아플 때 대처 어려움	균형 식사 어려움	가사 어려움	주거환경 불안전	범죄 불안전	경제적 불안	부정적 시각
전체	2.6	3.1	3.2	2.8	2.3	2.2	2.7	2.3
연령								
50대	2.4	2.8	3.0	2.6	2.3	2.2	2.8	2.5
60대	2.7	3.1	3.2	2.7	2.3	2.2	2.8	2.5
70대	2.6	3.1	3.2	2.8	2.2	2.1	2.6	2.2
80대 이상	2.8	3.4	3.4	3.2	2.3	2.2	2.6	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낌(최소 1점~최대 5점).

2)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원자료 재분석.

비스 지원 21.9%, 건강증진 지원 13.8%, 가사서비스 지원 9.4%,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적 서적 지원 8.2%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주택 안정 지원은 낮았다. 특히 50대의 경우 60.4%가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이 가장

[표 8] 향후 계속 1인가구로 거주 시 걱정되는 부분

(단위: %)

구분	향후 1인 가구 생활 유지 의향	향후 계속 1인가구로 거주 시 걱정되는 부분								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기타	어려움 없음	
전체	87.6	35.8	8.4	0.5	5.0	41.0	2.0	0.1	7.3	100.0
연령										
50대	81.4	52.3	8.2	1.1	3.7	24.1	2.1	0.0	8.4	100.0
60대	91.6	40.6	9.3	0.3	3.4	37.5	1.3	0.0	7.6	100.0
70대	88.0	27.3	8.4	0.4	4.9	48.4	2.0	0.3	8.3	100.0
80대 이상	88.3	20.9	6.9	0.2	9.2	55.9	3.0	0.0	4.0	100.0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원자료 재분석.

[표 9] 중고령 1인가구의 정책 욕구

(단위: %)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지원	계
전체	33.6	5.2	21.9	9.4	8.2	1.9	3.5	13.8	2.3	100.0
연령										
50대	60.4	8.3	7.0	3.7	5.7	2.6	3.2	7.5	1.5	100.0
60대	36.7	5.4	14.5	8.3	9.4	2.5	2.9	18.3	2.1	100.0
70대	20.3	4.3	28.6	12.2	8.4	1.9	5.3	16.6	2.3	100.0
80대 이상	14.1	2.1	43.4	14.3	9.4	.2	2.4	10.4	3.7	100.0
1인가구 형성 이유										
자발	37.0	6.1	22.0	6.6	4.9	3.1	4.5	12.8	3.1	100.0
비자발	32.3	5.1	22.1	10.5	9.1	1.8	3.5	13.4	2.3	100.0
기타	41.8	4.1	19.7	2.1	6.4	0.0	1.5	24.3	0.0	100.0

주: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0, 원자료 재분석.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해당 연령군의 주거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1인가구 형성 이유에서는 자발성에 따라 정책 욕구의 차이가 있었다.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집단은 주택 안정 지원 욕구가 37.0%로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집단보다 높았다. 가사서비스 지원,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집단이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 4 나가며

지난 10년간 한국의 1인가구는 급증하였으며,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50~60대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년층 중심의 1인가구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10년 전 40~50대(현재 50~60대) 연령군에서 무배우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70~80대 노인의 경우 이미 1인가구가 해당 연령군의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대 이상 무배우 1인가구의 증가율은 타 연령군에 비해 더욱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고령 1인가구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무배우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50~60대 남성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혼인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40~50대 무배우 1인가구는 미혼

비율이 증가한 반면 60~70대는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사별 비율은 감소하였다. 비혼자와 이혼율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중고령 1인가구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 무배우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무배우 1인가구는 월세 및 무상, 자가, 전세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50대 이상 무배우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진 특성을 보였다.

중고령 무배우 1인가구가 느끼는 현재의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3.2점)와 아플 때 대처(3.1점), 가사활동(2.8점), 경제적 불안(2.7점), 고립(2.6점) 등의 순이었다. 1인가구 생활을 유지할 경우 미래에 걱정되는 어려움은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 41.0%, 경제적 어려움 35.8%, 심리적 외로움 8.4% 등이었다.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이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적 욕구에서는 주택 안정(33.6%)과 돌봄서비스(21.9%), 건강증진(13.8%)의 비율이 높았다. 주거 안정 욕구의 경우 50~60대 무배우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진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의 욕구는 비혼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의 부재로 사적 돌봄 제공처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고령 무배우 1인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단기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의료 및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고령 무배

우 1인가구는 아플 때 대처에 대한 걱정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비혼 1인가구는 낮은 혼인율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50~60대에서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시각에서 악한 결합 관계로서 생활 동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위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 1인가구는 자녀가 없으며, 특히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1984년생 이후(국가지표체계, 2023) 출생자부터는 형제자매가 적다. 따라서 미래의 비혼 1인가구는 가족이 없는 온전한 1인가구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는 혼인과 혈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족 같은 기능을 하는 타인과의 결합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가능한 돌봄관계(registrable caring relationship)'와 같은 형태(송효진 외, 2021)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 접근으로는 아플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의 개편도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인 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시 현재 법정대리인만을 인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통해 가족 이외의 관계자가 동의하면 의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령 1인가구는 향후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1인가구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본인다움을 계속 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거주 외에도 1인가구의 시설·병원 입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1인가구는 유배우 가구에 비해 시설·병원 입소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시설서비스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정책의 제도적 개편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60대 무배우 1인가구는 주거 점유 형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중고령 1인가구는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는 현재 출산지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거정책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부양가족 수' 중심의 주택청약 당첨 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특별공급주택 분양 시 중장년 비혼 1인가구는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거 점유 형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 전반의 개편, 고시원·쪽방촌 등 중고령 1인가구 주요 거주 지역의 최저 주거 기준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신체 기능이 노쇠해지는 중고령 1인가구의 경우 (긴급)돌봄 상황 대처의 어려움, 높은 고독사 위험,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의 주거지 내 안전(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장년(50~60대) 남성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최근 50~60대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의미 있는 타자가 있는 비율(남성 69.2%, 여성 87.8%)(김세진 외, 2023)도 남성이 낮는데, 이들은 향후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중고령 1인가구로 생활하며 느끼는 어려움 중 '고립'은 우선순위가 낮다. 향후 어려움에서도 건강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부담 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1인가구 개인들은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에 비해 가족 내 비공식적 돌봄체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중고령 1인가구의 외로움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즉 정서적 안정과 같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는 1인가구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가 차원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방점이 있다. 1인가구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는 상당수가 '고독사' 관련 법령이며, 그 안에 1인가구 정책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1인가구는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구 형태로 고독사와는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에 대한 정서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영국의 외로움부,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장관, 스웨덴의 비자발적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서적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들 간의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고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의 고독으로 '고독, 외로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을 고려할 때 TV,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독과 외로움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독의 원인 및 극복 방법 등 정보를 전파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독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독감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한다. 이러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고독이 일반적이고,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방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사회 정보와 자원의 허브로 활용하여 중고령 1인가구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령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령 1인가구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〻

## 참고문헌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 국가지표체계. (2023). **합계출산율** [최근 갱신일 2023. 2. 2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
- 김석호. (2021). 1인가구 유형별 일상생활과 정책육구.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지원 방향과 전략의 출발점** [세미나]. 서울연구원.
- 김세진, 김혜수, 이선희, 채주석, 강은나. (2023).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8). 1인가구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41-79.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 배건이, 정극원. (2013).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송효진, 황정미, 김수정, 박광동, 김은지, 김영란, 박복순, 최진희, 김수진, 홍윤선, 변혜정, 조은주, 김수완, 배지영, 김현희, 이상모, 장원규, 홍주은, 이지영..., 장지영. (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데이터파일].
-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남궁은하, 임정미, 김혜수. (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준우, 장민선. (2014).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데이터파일].
- 통계청. (2020a). **2020 통계용어**. [https://kostat.go.kr/ansk/file/2020\\_StatisticalTerms.pdf](https://kostat.go.kr/ansk/file/2020_StatisticalTerms.pdf)
- 통계청. (2020b). **인구주택총조사 이용자 보고서**.
- 통계청. (2020c).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데이터파일].
- 통계청. (2022).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 수별 추계가구 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3)

#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of One-Person Household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Kim, Sejin

Kim, Hyeso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policy strategies for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Using time-series analysis, I examined changes in the share and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living alone, outlining a profile of their past, present, and projected living conditions. I also highlighted challenges and support needs specific to different age groups within the demographic.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presents policy options, from both short- and long-term perspectives, to better address the health, housing, and emotional needs of these one-person households.